

동성애와 역사



●민성길 교수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여 '국제신경정신약물학회 선구자상'을 받았다. 대한정신약물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초대 이사장, 서울 은평병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이다.

2차 성혁명 전 1950년대

맥카시즘

2차세계대전 직후 미국 정치에 맥카시즘(McCarthyism)으로 알려진 현상이 있었다.¹ 1950년대 미국은 냉전의 위협 속에서 공산주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이를 Red Scare라 한다). 소련의 공산주의자들, 스파이들과 그 동조자들이 미국(특히 정부, 대학, 영화

계 등)에 침투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였다. 1947년 트루먼 정부 때 정부 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는 일들이 있었다(이를 일차 Red Scare라 한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로 이런 두려움은 더 심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미국 공화당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이었던 맥카시(Joseph R. McCarthy 1908-1957)는 1950년 의회연설을 통해 정부, 군대, 그리고 사회 각층에 침투해 있는 공산주의자, 소련 스파이, 그리고 그 동조자들을 색출하여 축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공화당 주도의 여러 위원회를 조직하여 정부 내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하면서, 무모하게 사회유력

¹ Barnes M. The Cold War Home Front: McCarthyism, History on the Net. <https://www.historyonthenet.com/authentichistory/1946-1960/4-cwhomefront/1-mccarthyism/> (Retrieved 21 Jan 2019).

인사들에 대해 불충성, 국가전복, 반역 등을 조사하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부적절하거나 의심스럽고 과장된, 심지어 조작된 증거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 나가거나 투옥되기까지 하였다(이를 제2차 Red Scare라 한다).²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또는 그 동조자라는 혐의로 박해를 받았다. 1954년 와이오밍 상원의원 Lester C. Hunt가 아들이 동성애자임으로 인한 맥카시의 공격으로 자살하면서 맥카시 선풍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맥카시는 죽을 때까지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현재는 대부분 바로잡아졌다. 이 현상은 1950년대의 “McCarthyism”으로 불리어 진다.³ 열광적인 우파 이외에는 이를 비판하고 있다.

Lavender Scare (라벤더 공포)

맥카시는 국가 반역자 색출 대상에 성범죄자들과 동성애자들을 포함하였다.⁴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동성애자들이 연방정부 공무원 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그 이유는 동성애자들은 사회 안전을 해치며, 또한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보았던 것

2 Barnes M, The Cold War Home Front: McCarthyism, AuthenticHistory.com, . (Retrieved 21 Jan 2019).

3 Storrs LRY, McCarthyism and the Second Red Scare, American History, 2015-07-02. doi:10.1093/acrefore/9780199329175.001.0001/acrefore-9780199329175-e-6.

4 Lorena O'Neil, Lavender Scare: A Look Back at LGBT McCarthyism, OZY, FEB 05 2014, <https://www.ozy.com/flashback/lavender-scare-a-look-back-at-lgbt-mccarthyism/6192>

이다. 그들은 당시 도덕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를 Lavender Scare라 불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동성애자들이 정부기관의 직장에서 쫓겨났다. 동성애자들은 동료 동성애자들의 이름을 밝히려는 요구도 받았다. 어떤 동성애자들은 자살하였다(당시 동성애는 성범죄였다).

그렇만한 것이 지난 호에 설명하였듯이 성해방과 동성애 인정을 주장한 좌파 정신분석가 빌헬름 라이히는 공산주의자였다. 맥카시 선풍이 한창이었던 1954년 공산주의자로 의심되고 있던 빌헬름 라이히가 의료 사기로 감옥에 갇혔다. 그는 “orgone boxes”라는 장치를 팔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 장치가 우주선(cosmic rays)을 쬐게 해 주어 성기능을 증진시켜 주고 임포턴스를 치료해 준다고 광고하였는데, 이는 사기였다.

천문학자 Frank Kameny도 동성애자라 하여 1957년 연방정부에서 일하다 쫓겨났는데, 그는 1965년 백악관 앞에서 동성애 옹호 시위대를 이끌었다. 이는 미국에서의 첫 번째 동성애 인권운동 시위였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해고를 사과하고 Theodore Roosevelt Award를 수여하였다.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정책을 무효화 하였다.

포르노, 플레이보이 출현

1953년 시카고에서 헤프너(Hugh Hefner

1926-2017)가 잡지 『플레이보이』를 창간하였다.⁵ 오늘날에는 여성을 남성의 애완물로 보는 듯한 헤프너와 그의 잡지 『플레이보이』의 ‘쾌락주의 철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창간 당시에는 피임용 약(pill)의 판매량 증가와 함께 미국의 성 혁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킨제이 보고서(1948)에서 지적되었던 미국인의 성행동과 성의식의 변화를 대중문화와 대중소비의 세계로 실제로 노출시킨 사건이 되었다. 창간호의 플레이메이트는 그 해 개봉된 영화 《나이아가라》로 유명해진 M. 먼로의 컬러 누드사진으로 장식하였다. 이 남성 성인용 포르노 잡지는 출간 즉시 히트를 쳤다. 전후 1950년대 중반부터 경쟁적이며 자유주의적 미국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잡지와 플레이보이 라이프스타일은 큰돈을 벌게 해주었다.

1960년 시카고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 개설한 ‘플레이보이 클럽’은, 풍만한 유방에 토끼모양의 옷을 입은 ‘버니걸(bunny girl)’에 의하여 관심을 모았다. 잡지사는 나이트 클럽과 휴양소로 거대한 기업이 되어 갔다. 이른바 ‘플레이보이 왕국’을 구축해 나갔다. 1963년 헤프너는 외설죄로 시카고경찰에 체포되었다.

1970년에 이르러서는 한번에 500만 부에 가까운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성혁명에 따라 경쟁 잡지도 많아

졌다. 또한 비디오의 보급에 따라 발행부수는 320만 부(1997)로 줄어들었다. 1970-1980년대, 더 외설적인 잡지 Hustler와 Penthouse가 나왔고, 1990-2000년대에는 소위 lad mags(청년-소년 잡지)라는 Stuff and FHM 등이 나와 음란한 유머와 성행동을 강조하는 남자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1972년 여성과 게이들이 읽는 남자 누드를 신는 Playgirl이라는 잡지가 나왔다. 근년 온라인 포르노가 성행하면서 인기도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50만 부 이하로 발행 부수가 떨어졌다. 현재 플레이보이는 인쇄 사업에서 매년 700만 달러(약 74억 원) 이상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지금은 클럽, 맨션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비판

『플레이보이』는 어쨌든 미국의 1950년대를 반영한다. 당시 미국은 반공주의 정치관,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규격화된 성과 젠더규범을 공유했던 ‘안정된’ 시대였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조직자본주의 체제가 강요하는 일상성에 대해 중간계급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었다. 플레이보이지는 이런 남성들의 자유로운 성적 욕구의 실현과 독신주의를 옹호하면서 당대의 성과 젠더 규범에 충격을 가하였다. 『플레이보이』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성적인 존재로 각성시키고 또한 결혼, 가족과 같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사회제도들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지는 기존 연구

⁵ Josh Sanburn, Brief History: Playboy, Time Jan, 24, 2011
<http://content.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2042352,00.html>.

가 인식한 것보다 더욱 남성중심적이었고 가부장제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평가된다.⁶ 즉 「플레이보이」는 대다수의 여성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형상화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제도의 속박을 벗어나 남성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호전적인 성적 실현을 추구하는 욕망의 민주주의를 제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나아가 「플레이보이」는 탈규범적 성적 자유를 통한 남성성의 실현을 주장하면서도 “회사”를 직업적 성공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 장소로 재구성함으로써 남성 독자들과 자본주의 간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었다. 남성들에게는 저항하라고 유혹하고, 여성에게는 순응하라고 시사함으로써 이중적 사회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플레이보이」는 임박한 사회적 변화를 예비한 모순의 시대인 1950년대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플레이보이」는 1950년대 heterosexual monogamy라는 청교도적인 성윤리와 문화를 공격하였지만,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여성을 무시함으로써 그의 성혁명은 현 시점에서 보아서는 불완전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다.⁷ 그는 자신의 산업이 이성애를 옹호하면서도 보다 자유로운 태도를 발달시킨 공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를 이성애 옹호자로서 단순히 여성을 착취하는 폭

군적인 전체주의자였다고 비판한다. 개인적으로 헤프너는 부부평등, 낙태권리 옹호, 흑인 인권 옹호 등 좌파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게이에게는 자유를 주라고 하였지만, 여자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가정생활에서 남자들이 부담하는 문화적 억압을 제거하고 싶어 하였다. 그는 미국 남자들 모두 너무 일찍 결혼함으로써 성적 경험이 너무 없다고 비판하였다. 「플레이보이」는 그런 남자를 위한 잡지였다. 헤프너 자신 22세 때 결혼하였으나, 33세에 이혼하였고 이후 결혼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돈만 아는 여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예, 별거수당)하면서 여성 혐오적으로 나아갔다. 그는 풍만한 가슴, 긴 다리의 젊은 여성을 사랑하지만 부인은 미워하였다. 부인이 위협적이라면 싱글 우먼이 바람직해 진다. 헤프너식 라이프 스타일은, 잘 훈련된 부인(well-groomed wife)보다, 한잔 술로 하룻밤 빌릴 수 있는 고급 동반자(class companion)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독신녀도 잠재적 부인으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도 보았다. 그는 결혼을 비판하고 남성의 반란을 자극하고 남성적 쾌락과 해방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당연히 여성들로부터 비판을 자초하였다.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플레이보이지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963년 미국의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스타이넘(Gloria Marie Steinem, 1934 ~)이 플레이보이 클럽에 비밀리에 잠입하여 바니 역을 해

6 김정옥, 1950년대 성과 젠더규범 그리고 「플레이보이」: 젠더질서의 유희성과 가부장 없는 가부장 문화의 부상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2014:39:77~117.

7 Heeter J, Hugh Hefner's Incomplete Sexual Revolution, Anti-puritan but blind to his male privilege, the Playboy mogul liberated men by demeaning women, The New Republic, September 30, 2017, <https://newrepublic.com/article/145097/hugh-hefners-incomplete-sexual-revolution>.

본 후 “플레이보이 라이프스타일“이 천박하다고 글을 썼다. 이는 페미니즘의 일제 공격의 신호탄이었다. 헤프너는 이러한 페미니즘에 대해 극단적 반성적 비자연적(extremely anti-sexual unnatural thing)인 사상이라고 비판하고, 사회의 남녀 역할에는 구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죽기 전 15년 동안 헤프너는 급진주의에서 반동적 보수주의로 변화하였다. 그의 성 해방의 사상은 여성들에게는 제공하는 것이 없었다. 헤프너는 그의 맨션인 판타지랜드에 살면서 점차 시대착오적이 되어 갔다.

1980년 Playmate of the Year로서 Playboy Mansion에서 지내던 한 여성이 그녀의 남편에 의해 살해 되었는데, 그는 헤프너와 플레이보이의 삶의 방식이 그녀를 망쳤다고 비난하였다. 이 일로 헤프너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남편이 쓴 책이 출판되자 1985년 뇌졸중이 발생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성혁명에 기여하였다.

1957년 Hooker 연구

1957년 미국의 심리학자 Evelyn Hooker(1907-1996)가 동성애자들로부터 동성애자들과 이성애자들 간에 정신건강상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하여 1957년 논문 “The Adjustment of the Male Overt Homosexual”⁸ 이 출판되

었다.

그 연구내용은, 남자 동성애자 30명과 남자 이성애자 30명을 대상으로 양 집단은 나이, IQ, 교육수준을 같게 하였다. 아무도 과거에 상담경험이 없었고 군대나 감옥에 가지 않았다.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자신의 집에서 대상자들을 면담하였다. 심리검사 방법은 주제 통각검사(TAT), Rorschach 검사, Make a Picture Story test 등 3가지 심리검사였다. 1년간 연구를 수행하여, 그 심리검사 결과를 자신을 제외한 3명의 전문가에게 판독을 의뢰하였다. 판독자들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를 짝으로 하여, 두 사람을 5점 스케일로 평가하여 두 사람의 전반적 적응상태를 비교하였다. 이들 심리검사는 투사적 검사법(projective test)으로 내면의 불안, 공포, 또는 소원을 알아내는 것이었으며, 사회적응 수준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판독 결과 이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 정신적 적응면에서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로써 Hooker는 심리검사만으로 전문가도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였다(사실 심리검사만으로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비정상인이 영리하고 심리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더욱 검사하기 어렵다). 연구자들이 과거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것은 치료 중에 있던 병적인 상태의 동성애자들만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

⁸ Hooker E. The adjustment of the male overt homosexual,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1957;21:18-31.

이며, 사실에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동성애자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비판

Cameron 등(2012)⁹은 Hooker 연구를 재 분석해보면, Hooker의 연구는 철저하지도 신뢰할만하지도 못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는 test protocol에 의해 쉽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즉 연구는 “double blind”라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면, 이 연구는 연구대상 모집에 무작위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평가자가 평가대상이 동성애자인지 아니지를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종류의 연구에 치명적인 결함인 “자원자 오류”가 있었던 것이었다. 즉 연구 대상과 평가자 모두에서, “이중맹 (double blind) 방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연구대상이었던 동성애자 30명 대부분은 동성애자 지원 단체인 the Mattachine Society의 뉴욕지부에서 추천하였던 것이다 (the Mattachine Society는 동성애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50년에 공산주의자이며 노동운동가인 Harry Hay가 동성애자들을 모아 창립한 조직이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LGBT인권을 위한 미국 최초의 조직이 되었다. 이는 당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것과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옹호(a하는 사회조직이었다). 그 조

직이 어떤 동성애자들을 추천하였는지 알 수 없다. Hooker는 오히려 이성애자 대상을 모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이런 종류의 연구에 치명적인 결함인 “자원자 오류”가 Hooker의 연구에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심리검사 방법은 대단한 비밀도 아니며, 따라서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들 심리검사는 투사적 검사법(projective test)으로 내면의 불안, 공포, 소원을 알아내는 검사였다(사회적응 수준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Rorschach 검사는 10개의 무작위적 잉크블롯(ink blot)을 보고 무엇처럼 보이느냐를 묻는 것이다. 이는 당시 동성애 진단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알려져 있었다. 로르샤하 테스트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잉크블롯을 보고, 나비 같다고 할 수 있고, 귀신 얼굴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동성애 하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대답이 정상으로 보일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많은 정상인들이 반응했던 방식으로 “나비 같다”로 반응하면 그것은 정상반응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상 반응을 많이 보이면 그는 정상이라 진단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마음속에 불안, 우울, 망상이 있어도, 영리하다면, 이것들이 투사되지 않도록 거짓대답을 할 수 있다. 만일 이 실험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들과 비교하여, 동성애자들이 정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라는 것을 알고 실험에 응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쪽으로 편향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9 Cameron, P, Cameron K. (2012). Re-examining Evelyn Hook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with comments on Schumm's (2012) reanalysis. *Marriage & Family Review*, 48(6), 2012:491-523. <http://dx.doi.org/10.1080/01494929.2012.700867>

또한, 연구결과를 다시 분석해보면 동성애자 집단에 강박증이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된다고 한다. 즉 Hooker 연구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심리검사상 또는 전문가 진찰 때 본인이 노력하면 정상인과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 정신장애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즉 정상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동성애자가 있다고 해서 전체 동성애가 병적이 아니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 것이다.

파급효과

1956년 Hooker는 이 연구를 미국 심리학회 시카고 대회에서 발표하였다. 1950년대 이 연구는 즉각적인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심리학회에 의해, 무리하게 동성애자가 이성애자 사이에 정신건강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는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연구를 계속하도록 1961년 the NIMH Research Career Award을 수여하였다.¹⁰ 이러한 논문을 근거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정신장애 진단분류에서 빼라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결국 이 논문은 미국 정신의학회가 1973년 동성애가 정신장애 분류에서 제거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0 Ball L. Profile of Evelyn Gentry Hooker. In A. Rutherford (Ed.), *Psychology's Feminist Voices* Multimedia Internet Archive, 2010. <http://www.feministvoices.com/evelyn-gentry-hooker/>.

또한 이 연구는 2013년 미국 대법원에서 Lawrence v Texas 사건에서 항문성교를 합법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들의 태도는 그들이 과학보다 이데올로기 편에서 있었음을 보여 준다.¹¹ 당시 미국사회의 이데올로기 혼란은 극심하였다. 미국의 1950년대는 맥카시 선풍이 불던 시대(McCarthy era)였고, 1960년대에 이에 대한 사회적 반동이 크게 나타났다.

지난 40년간 미국 심리학회나 Hooker 자신이 이런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과학보다 이데올로기 편에서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1966년 마스터즈와 존슨 연구

킨제이 연구는 산부인과 의사 마스터스(William Howell Masters 1915 2001)와 존슨(Virginia E. Johnson 1925 2013)이 그들의 평생의 연구를 하도록 자극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1966년 『Human Sexual Response』와 1970년 『Human Sexual Inadequacy』라는 저술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젊은 미국인들의 성행위에 대한 생리학적 연구이다. 이는 성기능과 성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현대적인 길을 열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1 Cameron, P, Cameron K. (2012). Re-examining Evelyn Hooker: Setting the record straight with comments on Schumm's (2012) reanalysis. *Marriage & Family Review*, 48(6), 2012:491-523. <http://dx.doi.org/10.1080/01494929.2012.700867>.

그들의 연구는 센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 the Reproductive Biology Research Foundation에서 이루어졌다(1978년 Masters and Johnson Institute로 개명). 연구대상은 382명의 여자와 312명의 남자로서, 그들이 보인 1만 번 이상의 성행위에 따른 생리반응을 관찰하고 해부학과 생리학적으로 측정해 연구되었다. 특히 여성의 성적 흥분(sexual arousal) 연구는 질분비의 근원, 질 자극과 음핵자극의 효과 비교, 여자는 여러 번 오르가즘이 가능하다는 것 등으로 유명해졌다.

두 연구자도 스스로 성교를 통한 연구에 참여하였다. 마스터스에게 부인과 자녀가 있음에도 두 사람은 결국 연인이 되었다. 마스터스가 이혼 후 1971년 둘은 결혼하였지만, 1993년 이혼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구 동료로 남았다.

이전에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이런 종류의 연구는 어려웠으나, 킨제이의 혁명적 연구에 따라 이제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어 인터뷰가 아니라 실제 성행동(자위와 성교)의 심리학과 생리학에 대해 실험실에서 관찰,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연구대상들은 창녀와 창부였다. 후반부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로부터 남자 312명, 여자 382명의 자원자들을 모았다. 주로 백인 고학력 부부들이었다.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연구 대상 남녀가 인위적으로 짝을 지어 지정된 커플을 이루어 성

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적 흥분 시 성기와 인체의 생리학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인간의 성반응이 4단계가 유명하다. 즉 ① 흥분기(Excitement phase initial arousal), ② 고조기(Plateau phase, 충분히 흥분하였으나, 오르가즘 전단계) ③ 절정기(Orgasm), ④ 해소기(Resolution phase after orgasm) 이다.

그들은 또한 프로이트가 말한 “질 오르가즘(vaginal orgasm)”과 “음핵 오르가즘(clitoral orgasm)” 이란 것은 자극부위는 틀려도 흥분 시 생리상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여자 섹슈얼리티 실상을 보여줌으로 생리적으로 남자와 같다는 오해를 깨뜨렸다. 남자에게는 오르가즘 후 당분간 다시 사정이 불가능한 불응기(refractory period)가 있으나, 여성에게는 그런 불응기가 없고 다중 절정(multiple orgasm)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오르가즘시 인체의 리드미컬한 수축이 0.8초 간격으로 일어났다가 점차로 느려지고 약해진다는 것도 알아내었다.

노인들도 건강하고 관심 있는 사이라면, 70세 이후에도 젊은이들과 같은 성반응을 보인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성반응은 다소 지연되고, 질분비가 줄어들고 직접 성기 자극을 필요로 한다. 이는 노인에 대한

인구연구¹²에서도 최근 확인된 바이다.

마스터즈와 존슨은 실험실 연구를 토대로, 조루증, 임포턴스, 성교통증(vaginismus), 여성 불감증 등 성기능장애를 치료하는 혁명적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하였다. 이들은 이전에는 장기간에 걸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로 치료하던 대상이었는데, 그러나 성공률은 낮았다. 마스터즈와 존슨은 커플을 대상으로 치료자도 남녀 팀으로 하여, 단기간에 성장애를 정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이를 성치료(sex therapy)라 불렀다. 이 성치료의 성공률은 80%라 하였다. 성치료는 매우 파격적이어서 센세이션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배우자 대리자를 두어 치료적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포르노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마스터즈와 존슨은 동성애자들을 실험실에서 성교하게 한 후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Homosexuality in Perspective』에 발표하였다. 그 실험의 부산물로, 동성애자들은 상호자극으로 성행위를 시작하였으나, 조만간 은연중에 한 파트너가 다른 편을 통제(지배)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개발한 동성애 치료를 통해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성공적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마스터즈와 존슨은 특별한 성치료 기법으로 동성애를 전환하려 하였는데, 6년간 시행에서 71.6%의 성

공률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¹³ 그러나 존슨과 동료 정신과의사 Robert C. Kolodny는 이런 결과에 대해 의심적어 하였다.¹⁴

비판

마스터즈와 존슨의 연구는 의학계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성에 대한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성개방이 보편화되는데 기여하였다. 이어 유사한 성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인간의 성행동에서의 개인적 및 문화적 의미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을 받는다.

연구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이 섹스 노동자로서 성경험이 풍부하여 그들로부터 나온 결과를 일반인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실 환경을 아무리 편안하게 꾸민다고 해도 집안의 사생활과는 다르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존슨은 박사가 아니었다.

12 Helgason A, et al. Sexual Desire, Erection, Orgasm and Ejaculatory Functions and Their Importance to Elderly Swedish Men: A Population-based Study. Age and Ageing. 1996;25(4):285-291. doi:10.1093/ageing/25.4.285.

13 Schwartz MF, Masters, WH. The Masters and Johnson treatment program for dissatisfied homosexual m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984;141(2):173-181. doi:10.1176/ajp.141.2.173.

14 Maier, Thomas, Can Psychiatrists Really "Cure" Homosexuality? Masters and Johnson claimed to convert gays to heterosexuality in a 1979 book. But did they? Scientific American. Sciam.com, (2009-04-22).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homosexuality-cure-masters-johnson/>.